

# CLUBD

Destination & Differentiation

Summer | 2022



클럽디 거창 코스 전경







## ‘하늘 위의 쉼터’ 클럽디(CLUBD)거창, 최상의 코스로 여름철 ‘인기몰이’

경상남도 거창 유일 27홀 정규 퍼블릭 코스 골프장...  
해발 450~690m에 조성돼 여름 시원한 날씨로 골퍼에게 인기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의 네 번째 사업장인 클럽디거창이 최상의 그린 컨디션과 여름철 시원한 날씨로 인기가 높다. 클럽디(CLUBD)거창은 최근 티잉 그라운드 및 페어웨이, 그린 등 전체적인 코스에 대한 잔디 보식 작업 및 그린 스피드 개선 작업 등이 진행됐다. 여름철을 맞아 코스 상태가 인근 지역에서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골퍼들로부터 받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은 상태다. 코스별로 EAST 코스는 3,265m, 3,570yd)는 시원한 장타를 원하는 골퍼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며, WEST 코스(3,117m, 3,408yd)는 정교한 샷을 요구하는 코스로서 곳곳에 숨겨진 장애물을 극복하며 골프의 묘미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SOUTH 코스(3,206m, 3,506yd)는 시원한 비거리를 원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고, 홀 마다의 느낌이 전혀 다른 흥미로운 코스로 디자인 됐다. 무엇보다 클럽디거창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으로 감악산 해발 450~690m에 조성돼 시원한 날씨로 더운 여름철 골프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기도 했다. 클럽디거창은 방문하는 골퍼들을 위해 블랙 리무진 카트와 클럽하우스 내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비치, 페리에 탄산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창IC에서 약 15분 거리로 대구, 진주, 남원, 김천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글 | CLUBD MAGAZINE



클럽디 거창 클럽하우스 외부



클럽디 거창 코스 전경



클럽디 거창 테니스코트장



클럽디 거창 코스 전경



# 전국적 사회공헌 전액무상 ‘클럽디 꿈나무’ 1~2기 성황리에 마무리

## 오는 8월말부터 3기 모집... “골프장 밸류업 전문회사로 ESG 경영 앞장”

친환경 기업이자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이도가 운영하는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가 올해부터 시작한 전국적 사회공헌인 ‘클럽디 꿈나무’가 높은 만족도 속에 1~2기가 성황리 진행됐다. 클럽디는 지난 4월 30일~5월22일까지 클럽디 꿈나무 1기, 7월16일~8월7일까지 클럽디 꿈나무 2기 사회공헌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클럽디 꿈나무 사회공헌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골프의 재미를 통해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 도전 정신 함양 등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특히, 금번 클럽디 꿈나무 1기 교육에는 세계적인 골프 레전드 박세리 감독이 사회공헌 취지에 동참했다. 박세리 감독은 골프 꿈나무들에게 자신의 골프 시합 경험과 꿈나무들에게 도움이 되는 골프 레슨을 공유하고 싸인 모자를 나눠주는 등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꿈나무 꿈나무에 참가한 1~2기 학생들은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거두기도 했다.

꿈나무 1기를 수료한 손제이(거창, 제 5회 서라벌배 전국초등학교골프대회초등연맹 대회 남자 문무부 우승, 제 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골프부 경기 남초부 단체전, 개인전 금메달), 이치우(거창, 제 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골프부 경기 남자 중등부 단체전 금메달), 신진영(속리산, 제 33회 서울특별시협회장배 여초부 준우승), 장원영(금강, 제 10회 MBN 꿈나무 대회 남초부 준우승), 정조국(속리산, 제 4회 오토플러스배 KYGA 전국청소년골프대회 남초부 우승), 이소윤(거창, 제 27회 경상북도지사배 골프선수권 대회 여중부 우승), 박효담(거창, 블루원배 제 39회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13세이하부 여자 3위) 학생이 주요 대회에서 상위권을 휩쓸었다. 또한, 꿈나무 2기 이수민(거창, 제 4회 오토플러스배 KYGA 전국청소년골프대회 여중부 우승), 김규리(금강, 제 14회 박세리배 전국초등학생 골프대회 여초부 3위, 제 18회 인천광역시서구청장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 여초부 우승), 김동희(보은, 블루원배 제 39회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13세이하부 남자 3위) 학생 등도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올해 클럽디 꿈나무 사회공헌은 충북 클럽디 보은(18홀)과 속리산(18홀), 전북 클럽디 금강(36홀), 경남 클럽디 거창(27홀) 등 클럽디 4개 골프장에서 전국 단위로 동시에 연 3회 진행한다. 골프를 배우고 싶거나 프로선수를 꿈꾸는 초등학생, 중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식사, 숙박 등을 포함한 교육 관련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한다. 올해 마지막인 3기는 8월25일부터 9월19일까지 모집하며, 교육은 10월~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최정훈 (썬)이도 대표이사는 “당사는 차별화한 골프 서비스를 통한 삶의 즐거움 제공 등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이번 사회공헌은 이윤을 지역과 함께 나누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푸른 잔디에서 행복감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 | CLUBD MAGAZINE

**2022년 클럽디 사회공헌 프로젝트**  
**클럽디 꿈나무 3기 모집**

밸류업 플랫폼 기업 이도가 운영하는 클럽디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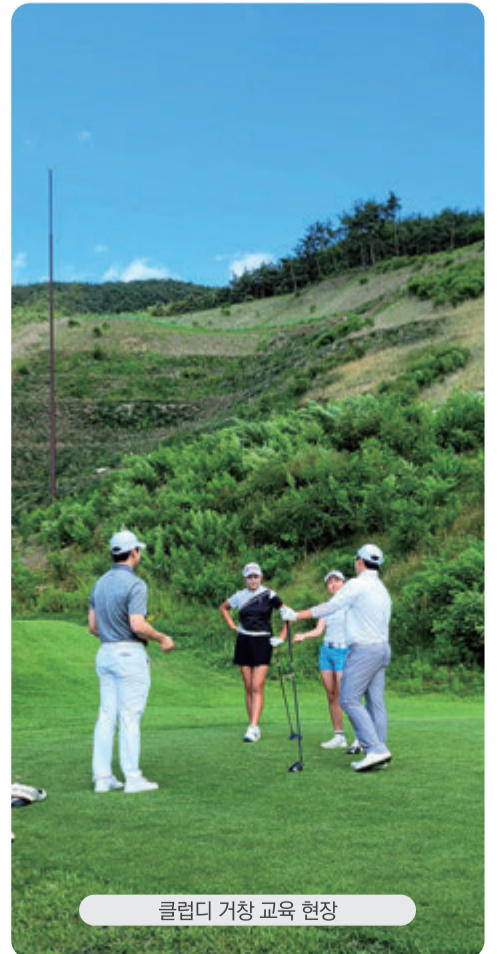
- KPGA/KLPGA 프로코치진
- 골프 교육 비용 전액 무료
- 체험위주 코스 라운드

**모집대상** 골프로 배우고 싶은 초등학생 / 중학생 누구나  
**신청기간** 2022년 8월 25일(화) ~ 9월 19일(월) 18시까지  
**교육장소** 클럽디 보은 / 속리산 / 금강 / 거창  
**교육시간** 월 : 16:00 ~ 19:00 (비식 제공)  
 화 : 08:30 ~ 12:30 (비식, 음식 제공)  
 - 참가비 지원자 숙소 제공 (필요시)  
**모집장소** 2022년 8월 22일  
**문의처** 02-6377-8730/8740/8741  
 clubjunior@yido.com

**희망하는 장소 한 곳을 선택해주세요!**

- 클럽디 보은: 골프로 배우고 싶은 초등학생 / 중학생 누구나
- 클럽디 속리산: 골프로 배우고 싶은 초등학생 / 중학생 누구나
- 클럽디 금강: 골프로 배우고 싶은 초등학생 / 중학생 누구나
- 클럽디 거창: 골프로 배우고 싶은 초등학생 / 중학생 누구나

YIDO CLUBD 가꿈이나라







##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마법같은 클럽디 거창 'WEST 9번' 홀

코스제원 : PAR4, 340m(화이트 티), 260m(레드 티)  
코스기록 : 이글 12회 / 버디 912회 / 파 27,771회 / 보기 10,642회 / 더블보기 4,987회

클럽디거창 WEST 9번은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마법 같은 홀입니다. 마지막 홀이라 편안해 보이지만 좌우 모두 OB가 도사리고있어 자칫 스코어를 잃기 쉬운 반전 있는 340M PAR4 홀입니다. 티샷은 IP 방향이 유리하지만 세컨드샷은 그린 뒤 여유 공간이 10M 이내라 정확한 거리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린 또한 앞, 뒤 모두 내리막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혀 쉽지 않은 홀이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좋은 스코어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홀 아웃 후 뷰 맛집으로 인정받는 클럽디 거창 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꼭 챙겨주세요. 글 | 박희정 클럽디(CLUBD) 거창 경기 팀장



## 함라산 꽃길의 추억을 갖는 클럽디 금강 'EAST 9번'

코스제원 : PAR5, 473m(화이트 티), 433m(레드 티)  
코스 기록 : 이글 76회 / 버디 4,744회 / 파 106,321회 / 보기 81,252회 / 더블보기 45,224회

익산 함라산 꽃길의 추억을 느끼는 EAST 9번 홀은 배롱나무꽃과 연꽃이 만개하여 많은 고객의 더위를 날려주고 눈이 행복해지는 홀입니다. 티샷 시 페어웨이 중앙에 있는 bunker와 아름다운 연꽃이 만개한 워터해저드를 피해서 안착해야 세컨드 샷이 부담 없는 홀입니다. 세컨드 샷은 페어웨이를 가로지르는 워터해저드를 넘겨 그린 주변 bunker를 피해 공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 그린으로 나뉘어 있어 정확한 거리로 공략해야 좋은 스코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 | 최은숙(CLUBD) 금강 경기 팀장



## 투온을 노려볼 수 있는 클럽디 속리산 'EAST 3번'

코스제원 : PAR4, 468m(화이트 티), 413m(레드 티)  
코스기록 : 이글 95회 / 버디 6,107회 / 파 56,865회 / 보기 103,987회 / 더블보기 79,755회

클럽디 속리산 EAST 3번 468m PAR5홀로서 투그린 홀입니다. 세컨드 샷이 페어웨이 중앙에 있는 워터해저드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공략해야 합니다.

해저드를 넘겼을 때는 장타의 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워터해저드를 넘기기 어렵다면 우측 좁은 공간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컨드 지점부터는 오르막을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우측 그린은 1클럽 좌측 그린일 경우 2클럽까지 길게 잡아야 좋은 스코어를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글 | 남승미 클럽디(CLUBD) 속리산 경기 팀장



## 블라인드 홀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도전적인 클럽디 보은 'EAST 6번'

코스제원 : PAR4, 320m(화이트 티), 245m(레드 티)  
코스기록 : 버디 142회 / 파 2,106회 / 보기 6,568회 / 더블보기 6,704회 / 트리플보기 3,574회

티잉 구역에서 그린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홀입니다. 티샷 시 다소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좌측에 마법처럼 숨어있는 넓은 공간의 페어웨이가 불안감을 망각하게 해줍니다. 우측 자연림 방향보다는 좌측으로 공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장타자는 그린 앞 워터 해저드에 빠질 수 있으므로 공략 지점과 클럽 선택을 신중히 고려해야만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세컨드 샷이 끝나고 그린으로 이동하면서 카트로 옆에 활짝 핀 금계국의 향기에 잠시 취해보셔도 좋습니다.

글 | 허현숙 클럽디(CLUBD) 보은 경기 팀장





## 하늘 위의 쉼터에서 즐기는 맛의 향연 클럽디 거창 레스토랑



박중휘 셰프



차돌박이 모듬 만두전골



전복 해물 순두부찌개



미나리 새우전 & 명란 순두부

무더운 여름, 해발 700미터 바람이 만든 낮은 언덕과 같은 감악산에 조성된 클럽디(CLUBD) 거창은 3대 국립공원인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을 감상할 수 있는 수려한 원경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클럽디 거창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 도착하면 몸과 마음을 충전해줄 음식들이 골퍼들을 기다리고 있다. 클럽디 거창 클럽하우스 1층에 있는 세련된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은 '도심 속 생활 방식의 어반하우스' 콘셉트로 오픈했다. 이곳을 찾는 골퍼들을 위한 음식은 '박중휘 셰프'가 담당하고 있다. 박 셰프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와는 다르게 외식 및 골퍼장 경력이 10년 차인 베테랑 셰프이며, 특히 이곳 클럽디거창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수년을 근무하며 골퍼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차돌박이 모듬 만두전골', '전복 해물 순두부찌개', '미나리 새우전 & 명란 순두부'는 박셰프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3가지 메뉴이다. 미나리 새우전과 명란 순두부는 향긋한 미나리와 잘게 다져진 새우살을 베이스로 양파장아찌와 곁들여 먹으면 그 향을 배로 느낄 수 있어 클럽디 거창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메뉴다. 전복 해물 순두부찌개는 몸에 좋은 전복과 여러 가지 해물이 부드러운 순두부와 어우러져 깊고 진한 풍미가 일품인 메뉴로 무더운 여름철 원기 회복에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차돌박이 모듬 만두전골은 고소한 차돌박이와 담백한 만두로 시원한 국물을 담아낸 전골 요리이며 남은 국물에 칼국수 면을 익혀서 먹으면 든든한 한 끼 식사 부럽지 않다.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클럽디 거창에서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라운딩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글 | CLUBD MAGAZINE

## INFLUENCER INTERVIEW

### 성악과 수석 졸업 출신에서 골프 간판 캐스터가 되기까지... '안현준 SBS골프 아나운서'의 굿샷

국내 골프의 인기에 한몫을 톡톡히 하는 사람 바로 골프 중계 캐스터다. 골프 중계는 절제된 돈과 상황마다 흥미를 유발해야 하는 포인트를 집어야하기 때문에 야구와 축구 등 다른 스포츠 중계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가운데 국내 골프 전문 아나운서 중 간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나운서가 있다. 바로 굿샷하고 매력적인 음성을 갖춘 SBS골프 안현준 아나운서이다. 연세대 성악에서 수석 졸업을 하기도 하고, 팬텀싱어2에 출연하는 등 음악적 재능도 뛰어난 그가 아나운서를 꿈꾸고 골프 캐스터로 성장하게 됐는지 클럽디가 만나봤다.

Q.CLUBD: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안현준 아나운서(이하 안현준): 클럽디(CLUBD)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SBS Sports&Golf 채널에서 방송하고있는 아나운서 안현준입니다. 작년 KLPGA 대보 hausD 오픈을 진행하면서 클럽디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클럽디와 지속해서 인연을 이어가고싶은 청년입니다^^

Q.CLUBD: 요즘 엄청 바쁘실 텐데,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가요?

A.안현준: 저는 지난 2019시즌부터 SBS 골프 채널에서 KLPGA 메인 중계 캐스터를 맡게 되면서 선수들과 비슷한 스케줄로 한 시즌 한 시즌을 소화하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나 KLPGA를 중심으로 마스터스, US오픈 등 SBS Golf 의 주요 골프 콘텐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콘텐츠 (인캐디) 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런칭해서 선수들과 재미난 이야기를 주고받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Q.CLUBD: 학부 전공이 성악이더라고요. 그것도 수석 졸업까지 하시고요?

A.안현준: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던 차에 동네 음악학원 선생님의 권유로 뒤늦게 성악에 입문하게 됐고, 좋은 목소리를 주신 부모님의 덕에 은인과의 같은 교수님을 만나 운 좋게(?) 연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어릴 때부터 예중, 예고를 진학한 것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대학에 입학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사경고도 한번 받았답니다... 2학년을 그러저러 마치고 군대에 군악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전.의경 홍보대사로 군 생활을 하며 전국의 수많은 크고 작은 무대를 오르며, 부족했던 무대 경험과 음악적 지식을 많이 채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바탕으로 복학 후 졸업까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Q.CLUBD: 소위 '엄친아'시네요. 그런데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신데요. 아나운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A.안현준: 대학 4학년을 마치고 학교의 추천을 통해 독일 오페라극장으로 짧게나마 연수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클래식적 본고장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 그들이 클래식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더욱더 깊이 느낄 수가 있었고 제가 한참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던 것은 '음악'이 아니라 '음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제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내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고민하다 예전부터 해보고 싶던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자금으로 모아놓던 돈으로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등록하면서 1년간의 도전 끝에 2014년부터 대전 SBS(TJB)에서 아나운서로 본격적인 아나운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Q.CLUBD: 팬텀싱어2에도 출연해서 주목받으셨던데요?

A.안현준: 아나운서라는 직업으로 방송하고 있지만, 같은 시기 공부하고 노래했던 주변 친구들이 팬텀싱어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꼭 해보고 싶다' 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무대에 대한 갈증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퇴사할 각오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일과 오디션 프로를 병행하다 보니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했던 시기기도 했지만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다이나믹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Q.CLUBD: 아나운서의 길을 선택하고, 음악적 재능이 아깝지는 않으셨나요?

A.안현준: 사실 팬텀싱어에 출연했을 때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내가 빛날 때보다 남을 빛내야 할 때가 더 많은 직업입니다. 무대에서 오롯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우선 우승을 못 했으니까 ㅎㅎㅎ 최근에도 여러 오디션 프로 제의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은 해보고 있지만 아직은 현재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세상을 떠난 미국의 명 캐스터 빈 스킨리처럼 KLPGA 투어 하면 안현준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Q.CLUBD: 아나운서를 하면서 특히 스포츠 캐스터를 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A.안현준: 스포츠 캐스터는 꾸준히 공부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종목에 대한 이해, 선수에 대한 이해, 경기 룰을 비롯한 여러 변수들에 대한 대비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한 직업인 만큼 한 부분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의 선수들과 스케줄이 거의 같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잘 유지해야 하고, 남들이 쉬는 주말에 쉬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쉬운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CLUBD: 스포츠 중에서 그럼 골프가 메인일까요?

A.안현준: 업무의 비중은 골프가 90%이긴 하지만, SBS Sports와 Golf 채널이 두개 있기 때문에 동료 아나운서들이 업무 과부하에 걸리지 않게 다른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축구, 야구, 당구, 볼링, 복싱 등) 그래서 여러 종목에 관한 공부도 꾸준히 합니다!

Q.CLUBD: 골프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A.안현준: 처음 시작은 선배들의 권유로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골프의 정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의견으로 PGA투어 중계방송으로 골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골프를 칠 줄도 모르고 분위기도 적응이 잘 안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집 앞에 골프연습장을 끊고 욱하면서 7번 아이언을 휘둘렀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지금은 골프가 제 인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좋아하는 일이 됐습니다. 골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인생과도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은 정말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또 모르죠. 제가 언젠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도?! ㅎㅎㅎ

Q.CLUBD: 혹시 방송하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요?

A.안현준: 늘 생방송을 하다 보니 에피소드가 정말 많은데요 PGA중계 방송에 처음 데뷔했을 때, 미국의 Matt Kuchar(맷쿠차) 라는 선수가 나올 때 갤러리들이 우~~~~ 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고 "야유 하네요?" 라고 방송때 말을 했는데 사실 이 선수를 응원하는 쿠~~~~ 소리 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게 옥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새벽중계때는 졸다가 의자 뒤로 넘어간 적도 있고, 야구 중계 첫 중계때는 중계석에서 경기장까지 시야가 꽤 먼데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양의지 선수 홈런을 외야수가 잡았다고 콜했다가 두산베어스 팬들에게 집중포화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Q.CLUBD: 골프 캐스터를 하다 보면 대회를 많이 다니실 텐데요. 선수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보시면 어떨까요?

A.안현준: 선수들을 직접 겪으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도 어린 선수들이 지금 KLPGA 주축 선수들인데 선수들 평소 스케줄을 보면 정말 살인적입니다. 쉬는 날도 거의 없고 연습에 또 연습. 정말 힘든 시간을 버티고 버티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존경을 넘어 가끔은 경외심까지 들 정도니까요. 대한민국 골프선수들 정말 최고입니다!

Q.CLUBD: 골프 실력을 어떻게 되시나요?

A.안현준: 올해 필드에서는 90대 초반까지 올라왔고요, 스크린에서는 80타가 라베입니다.ㅋㅋㅋ

Q.CLUBD: 혹시 가장 좋아하는 프로는 누구일까요??

A.안현준: 박현경, 임희정 프로를 꼽겠습니다. 저와 klpga투어 데뷔 동기를 이기도 할뿐더러 지금 투어를 대표하는 젊은 스타플레이어이기도 한 두 선수 인데요. 평소 두 선수의 인성은 기본이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 미디어를 대하는 에티튜드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Q.CLUBD: 이도(YIDO)의 클럽디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나요?

A.안현준: 골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기업이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젊고 세련됐다 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클럽디에 곧 다시 방문할 예정이고요. 클럽디 화이팅입니다!

Q.CLUBD: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A.안현준: 올해 KLPGA 하반기 일정까지 마무리 잘해서 22시즌 기본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1차적인 계획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제가 직접 기획해서 런칭한 유튜브 콘텐츠 (인캐디)를 통해 중계에서의 진지한 모습만이 아닌 또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대보 hausD 오픈에서 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글 | CLUBD MAGAZINE





## 폐기물은 천연자원의 보물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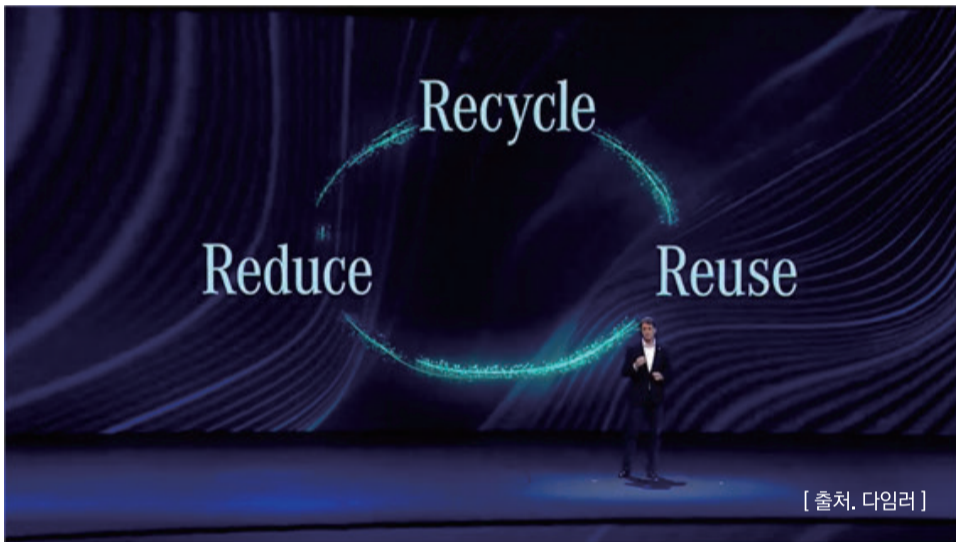


글 | 권순우 삼프로TV 취재팀장

2020년 미국 소비자대전전시회(CES)에서 다임러그룹은 자동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매우 특이한 비전을 제시했다. 자동차가 생산되면 그에 따라 자원 소비량도 늘어나는데, 그 곡선을 분리(디커플링)하겠다는 내용이다. 자동차를 만들 땐 철강, 플라스틱 등 많은 소재가 들어간다.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은 자원을 소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자원을 소비하지 않고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일까?

올라 칼레니우스 다임러그룹 이사회 의장은 '자동차 생산과 자원 소비 곡선을 디커플링 시키겠다'는 말이 "지난 밤 술김에 한 결혼식을 취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다면서 그 세가지 비결을 제시했다.

줄이기(Reduce), 재사용하기(Reuse), 재활용하기(Recycle). 순환경제의 핵심 3R이다.



[ 출처, 다임러 ]

칼레니우스 의장은 생산단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을 재사용하고, 폐기물 생성과 에너지 소비를 40% 이하로 줄이며, 줄일 수 없는 부분은 모두 재사용/재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다임러의 선언은 극단적인 환경주의자의 주장처럼 들릴 정도로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순환경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미래 산업으로, 지속가능성의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인류의 생산과 소비는 지금껏 선형으로 이뤄졌다. 자연에서 자원을 채굴해 가공 및 제조를 하고 상품을 만들어 소비를 하고 버린다. 폐기물은 태우든 묻든 지구상 어딘가에 버려진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얻고 그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비된다. 순환경제는 사용된 상품이 폐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생태계다. 폐기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녹록한 일은 아니다. 유리, 알루미늄 캔, 종이 등 일부 소재들이 재활용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버리는 물건을 다시 활용한다고 하면 더 저렴할 것 같지만, 이미 사용된 물건을 다시 원재료를 돌리는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오히려 자연에서 자원을 캐는 것보다 더 많이 들기도 한다. 순환경제의 아이디어가 나온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여지껏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다.

2050 탄소중립은 인류가 지금까지 풀어온 성공 방정식을 바꿔 버렸다.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데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추구하게 됐다. 또 그 대상은 비단 화석연료에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 속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소재인 플라스틱은 화석연료로 만든다.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화석연료의 분자 구성을 다양한 공정을 통해 사람이 원하는 질의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 할 정도다. 하지만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면 화석연료로 만드는 플라스틱 산업에도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 이전까지 재활용은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일부 자원을 활용하는 작은 시장으로 여겨졌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지 않겠다는 화학 업체가 없을 정도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2025년까지 울산에 페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열분해, 해중합 등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대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페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유를 SK이노베이션 정유공정에 투입하기도 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국제 협력도 필수적이다. SK이노베이션은 프랑스의 친환경 전문 기업 베올리아와 함께 순환 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1853년 설립된 베올리아는 수처리, 에너지 관리,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양사는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등 열분해 원료로 쓰이는 페플라스틱 공동 스테디를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은 친환경 사업 전략인 '그린 프로미스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재활용 제품 100만톤을 판매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롯데케미칼은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 방식을 모두 활용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새 플라스틱 원료와 재활용 원료를 적절히 혼합해 최적의 생산 품질을 내는 컴파운딩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료가 되는 페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글로벌

30개 이상 업체와 연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공장이 있는 헝가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재활용 공정을 만들고, 현지에서 사용한 페플라스틱을 현지 공장에서 재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전지는 재활용 투자가 가장 활발한 영역 중 하나다.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싼 부품이다. 배터리 원가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원재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배터리 사용량이 많지 않을 때 폐배터리 사업은 소규모 틈새 시장이었다.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막대한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오면 여기서 추출되는 원재료 규모도 엄청나게 커진다.

전 세계적으로 폐기되는 전차기는 2025년 54만대에서 2030년 414만대, 2035년 1911만대, 2040년 4630만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폐배터리 규모 역시 2025년 42GWh에서 2040년 3455GWh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역시 2017년 1억 4천만 달러에서 2025년 22억 8천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이 화석연료가 아닌 페플라스틱에서 나오듯 배터리에 들어가는 금속도 광산이 아니라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일이 먼 미래 일이 아니다. 도시에서 자원을 채굴하게 된다는 의미로 '도시광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 성일하이텍의 상장은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성일하이텍이 실시한 공모주 청약에서 최종 경쟁률은 1207.07대 1을 기록했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역대 최고 경쟁률인 2269.7대 1을 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5만원으로 결정됐고 청약증거금으로 총 20조 1431억원이 모였다. 지난 1월 LG에너지솔루션 이후 올해 가장 큰 규모다. 시초가 역시 공모가에 두배인 10만원을 형성했다. 성일하이텍은 성일하이텍은 지난해 11GWh였던 생산 용량을 2030년까지 77GWh, 7배 확대할 계획이다. 매출 목표는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으로 잡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에 600억원을 투자했다. LG 에너지솔루션 북미 공장서 나온 폐배터리를 라이사이클에 공급하고, 라이사이클이 만든 원재료는 2차전지 소재를 만드는 LG화학에 공급된다. LG화학이 만든 양극재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들 때 활용된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23년부터 10년에 걸쳐 니켈 2만톤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고성능 전기차 기준 30만대 분의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LG 에너지솔루션은 202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 자원 선순환 고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차 전지 배터리를 제조하는 SK그룹 역시 배터리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정유 공장 운영 기술을 바탕으로 수산화리튬 추출 기술을 자체 개발해 54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수산화리튬은 고성능 배터리(NCM811 이상)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재료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이미 시험생산 공장을 완공한데 이어 상업 생산 공장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배터리 글로벌 생산 체제처럼 미국, 중국 및 유럽 등에 폐배터리 재활용 상업 생산 공장 건설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롯데케미칼 그린 프로미스 2030 ]

우리가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폐기물에서 자원을 추출하다 보니 폐기물 사업 자체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기업 주식회사 이도는 여러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해 자원 순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도는 수도권, 충북, 전북, 제주를 연결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이도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산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업인 중부환경을 인수했다. 중부환경은 일 1200만톤 규모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고, 산업폐기물 종합재활용 및 중간처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도는 향후 전국적인 산업 폐기물 밸류체인을 확장해 친환경 전문 기업으로서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최정훈 이도 대표는 "버려지는 산업 폐기물을 자원으로 변화시키는 사업 운영을 통해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며 "향후 페플라스틱 재활용 등 신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은 인류를 풍족하게 만들어줬지만 다 사용된 폐기물 때문에 인류는 위기에 처했다. 폐기물이 다시 자원이 되는 순환경제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과제다. 이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신산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밸류업 플랫폼 이도 (YIDO), 블루수소 생산 위한 CCU 기술 개발 나서... 탄소중립 정책 동참

밸류업 전문 플랫폼 회사 주식회사 이도(YIDO)가 탄소중립 경영을 위해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CCU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 포집 및 활용 분야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연간 100만 톤급 상용화 공정 설계 수행을 통해 기술 내재화하며 회수율 90%, 순도 95% 이상의 저에너지 CO2 포집, 액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향후 이도는 오산 소각장 등 소유 중인 다른 환경사업장에도 CCU를 적용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글 | CLUBD MAGAZINE



## 클럽디(CLUBD), KLPGA 프로들과 대보하우스디(hausD) 오픈서 환경 기부 실시

친환경 기업이자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 회사인 (주)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운영 중인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는 이번 대회에서 KLPGA투어 프로들과 함께 환경을 위한 에코(ECO) 캠페인을 펼쳤다. 클럽디는 협업 골프장인 서원밸리CC에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제2회 대보 하우스디(hausD) 오픈 대회 기간 9번홀(밸리코스 9번 홀)에 위치한 클럽디존에 참가 선수들이 티샷에 성공하거나 추천 선수인 안근영, 김승연 프로가 버디(100만 원)나 이글(150만 원), 홀인원(200만 원)에 성공할 때 기금을 적립했다. 또한, 우승자인 송가은 프로는 2022년 시즌을 위해 사용한 드라이버, 조아연 프로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우승 퍼터, 오지현 프로는 작년 삼다수 대회 우승 시 사용한 3번 우드, 박현경 프로는 2020년 아이에스동서 부산 오픈 우승 당시 사용한 드라이버를 기부했다. 최정훈 (주)이도 대표이사는 “당사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친환경은 물론 골프장 서비스와 코스 관리 등 차별화된 토털서비스로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문 기업”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프로들과 함께 마련한 소중한 기부금이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글 | CLUBD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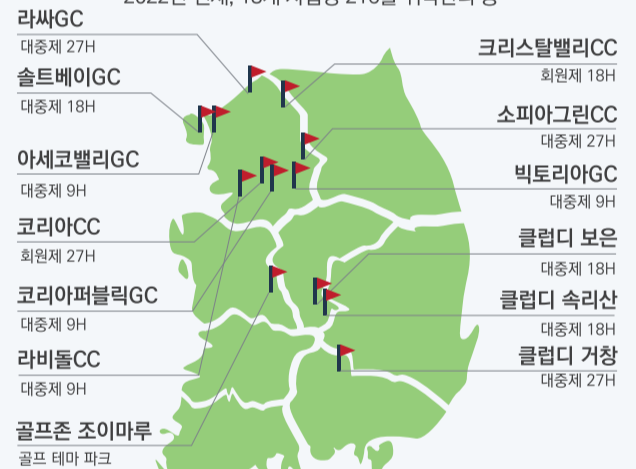


## (주)이도(YIDO), 삼성 출신 잔디 전문 박사 대거 합류... 코스 전문회사 유골프엔지니어링 인수

친환경 기업이자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 회사인 주식회사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에 삼성물산 출신의 최고 잔디 및 코스 전문가가 대거 합류한다. 이번 영입으로 (주)이도는 골프장 인수 및 예약, 서비스 등 골프장 전문 운영을 넘어 코스 및 장비 운영 관리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골프 클럽 클럽디(CLUBD)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이도는 지난 6월 골프장 설계, 및 코스 관리, 조경 유지관리 전문기업인 유골프 엔지니어링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유골프 엔지니어링은 국내 최고 코스 관리 전문 기업이다. 남촌CC, 크리스탈 밸리CC, 코리아CC, 솔트베이CC, 중원CC 등 약 30곳 이상의 국내 대표 골프장의 코스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왔다. 이로써 안양CC 코스 관리 총괄과 수석 그린 키퍼를 역임한 전재찬 대표와 삼성물산 잔디 환경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한국 최초 여성 잔디 박사인 태현숙 박사가 (주)이도에 합류하게 됐다. 글 | CLUBD MAGAZINE

### 유골프 코스관리 사업실적

2022년 현재, 13개 사업장 216홀 위탁관리 중



## 이도, 인천~김포·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운영관리 계약... “총 10개 민자도로 운영으로 업계 1위 확고히”



인천김포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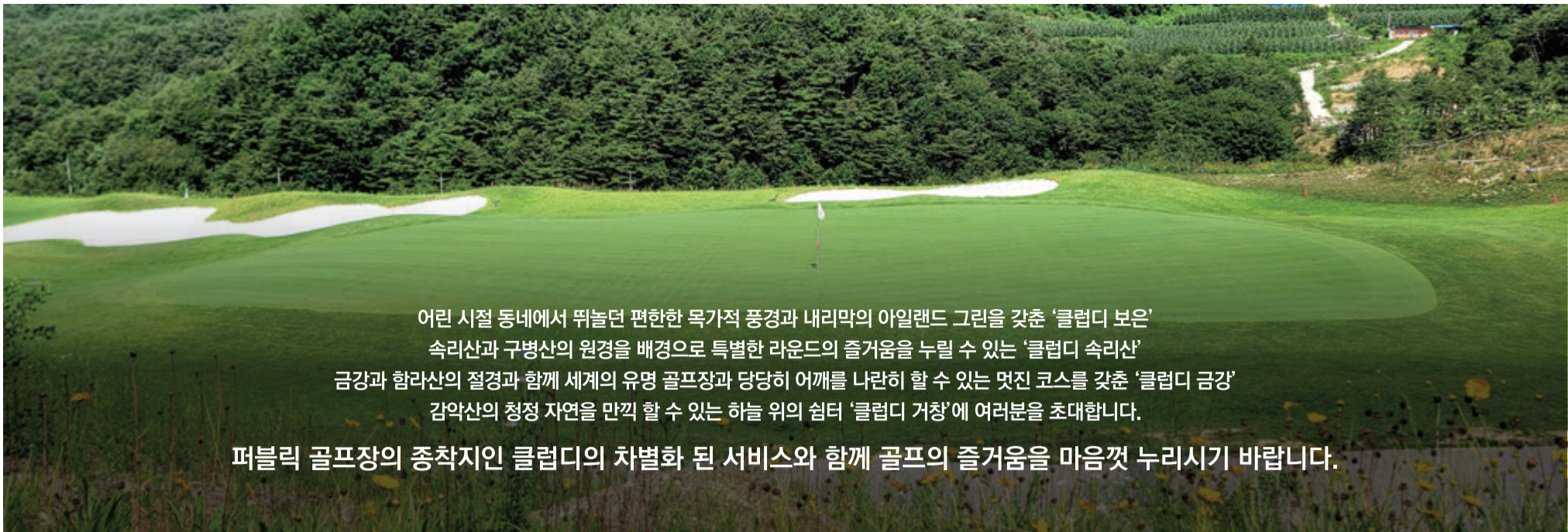
총연장 : 28.88km  
 용역수행 : 영업관리, 도로관리, 시설관리, ITS관리, 교통관리  
 도로설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에 기여(영종, 청라, 송도지구), 인천 서-북부 및 김포 지역의 간선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난 해소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총연장 : 38.5km  
 용역수행 : 영업관리, 도로관리, 시설관리, ITS관리, 교통관리  
 도로설명 : 수도권 남부에서 제2경부축 역할로 상습정체 구간인 수원, 화성, 평택, 오산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완화,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인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어린 시절 동네에서 뛰놀던 편한한 목가적 풍경과 내리막의 아일랜드 그린을 갖춘 '클럽디 보은'  
 속리산과 구병산의 원경을 배경으로 특별한 라운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클럽디 속리산'  
 금강과 함라산의 절경과 함께 세계의 유명 골프장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멋진 코스를 갖춘 '클럽디 금강'  
 감악산의 청정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는 하늘 위의 쉼터 '클럽디 거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퍼블릭 골프장의 종착지인 클럽디의 차별화 된 서비스와 함께 골프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 CLUBD

## GEOCHANG

경상남도 거창 유일 정규 27홀 컨트리클럽

# 클럽디 거창

하늘 위의 쉼터 클럽디 거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골프의 재미를 만끽하세요!

클럽디 거창 예약 055-945-2222

### CLUBD 우수캐디

			
<b>박연주</b> CLUBD 보은 경력 10년 2개월	<b>김은조</b> CLUBD 속리산 경력 7년 4개월	<b>홍옥주</b> CLUBD 금강 경력 15년	<b>박성은</b> CLUBD 거창 경력 6년

NEW MZ세대의 또다른 브랜드 「위틴!」

# WITIN!!



**WITIN**

## G+Plus

**G골프의 Plus 재미를 더하다!**

클럽디 인터넷 고객 대상으로 예약 및 내장, 고객별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등급 점수로 고객별 6개월 마다 차별화된 클럽디 G-Plus의 다양한 쿠폰 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YDO safeD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Contech Future Leader 산업안전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스마트 위험성평가**  
위험성 크기 평가, 조치/검토

**위험요소 제거**  
추가위험 발굴, 위험요소 사전 제거

**다국어 지원**  
Google AI 자동번역 기능 제공



**안전 모니터링**  
GPS를 통한 출역/작업위치/동선

**비콘**  
이동식장비 탈부착, 스마트폰 접근경고

**커뮤니케이션**  
SMS, Mobile Push 알림 가능

**클럽디 보은**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중초로 386  
 안내 info\_boeun@clubd.com 전화 043-540-8888  
 예약 booking\_boeun@clubd.com 팩스 043-540-8889

**클럽디 금강**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응포면 강변로 130  
 안내 info\_geumgang@clubd.com 전화 063-720-7700  
 예약 booking\_geumgang@clubd.com 팩스 063-720-7799

**클럽디 속리산**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평각상장로 230  
 안내 info\_songnisan@clubd.com 전화 043-540-8000  
 예약 booking\_songnisan@clubd.com 팩스 043-544-9600

**클럽디 거창**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398  
 안내 info\_geochang@clubd.com 전화 055-945-2222  
 예약 booking\_geochang@clubd.com 팩스 055-945-6060

